

# 부처님이 전하려던 메시지는 깨달음이 아니다



돈연 스님

법종은 하루 세 번 올린다. 아침 예불, 점심 마지, 저녁 예불 때. 예의가 있다. 수행자가 입적했을 때 108번을 올린다. 열반 종소리다. 삶을 깊이 되돌아 보는 삶과 죽음을 벗어난 소리다. 한 생을 마감하는 장중한 느낌이 담겨 있어 순식간에 산중을 섬섬하고 엄숙하게 이끈다. 출가한 이는 너나들이 이 종소리를 들으며 시공간을 버리고 떠난다. 2010년 3월 11일 오후 1시 51분. 때 아나기 길상사 법종이 울렸다. '수행은 겸허와 청빈 그리고 엄숙함과 청정을 주춧돌로 삼는다'는 법정 스님이 생전에 사신 모습 그대로를 소리에 담아.

“집이 워낙 가난해 가지고 초등학교 때부터 나무를 해서 학비를 벌었으니까. '재는 나무를 해야 학교를 다닐 수 있다'고 선생님들이 인정을 해주었어. 그래서 결석을 터놓고 한 해에 석 달은 했어. 그래서 불여진 별명이 나무꾼이였어. 10대까지는 그 별명이 참 싫었어. 창피했는데. 20대 지나면서부터는 그게 내 문화 재산 가운데 하나로 등록되더라고. 아이 셋을 낳았어. 나무꾼이 아이를 돌을 낳으면 신녀가 낳아가 버리는데, 셋을 낳아서 도망치지 못했어.” ‘메주와 켈리스트’로 널리 알려진 돈연 스님(66)을 강원도에서 만나야 제격일 텐데 서울에 있는 도안네 신당에서 마주 앉았다. 25년 동안 수행한 학승 돈연 스님은 켈리스트 도안네(58)와 93년 결혼한 뒤 두터산기슭에 매주공장을 차리고 신접살림을 시작해 대저승이 되어 세 아이를 얻었다. 두 딸은 여래와 문수, 아들은 보현. 모두 부처와 보살 이름이다.

##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네

“결혼하겠다고 마음먹으면서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사는 일도 재미있겠다. 여자하고 산다든가 애를 낳는 일이 불결한 일은 아니지 않느냐' 제 생각엔 이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산중을 떠나는 일은 불교수행자로서는 타락으로 봐요. '내가 나가서 뭘 하든지 상관없이 여기 나가면 끝이야!' 맞지 않는 말이죠.”

돈연 스님과 법정 스님 인연은 40년 가까이 된다. 처음엔 그저 만발치서 종단 어른으로 보였을 뿐이었다. 그러다 1973년도에 돈연 스님이 역경원 연수생으로 들어가면서 법정 스님을 뵈시고 살게 되었다. “그때 연수생을 강사급 가운데서 뽑았어. 한 10명쯤 뽑으려고 했는데, 국어점수가 된 사람이 다섯 명 뿐이 안됐어.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국어점수가 저만 60점이 넘고 나머지는 다 낙제였답니다. 운허 스님이 생각해 보니까 큰일 났어. 그래서 하느 수 없어 점수가 좀 괜찮은 스님들을 가려서 법정 스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과일이 나지 않게 해달

라고. 법정 스님이 국어를 담당하시고 운허 스님이 경전, 운기 스님이 (회엄경) 그리고 각성 스님, 월운 스님, 흥정식 교수 그밖에 동국대 교수들이 강의를 맡았어. 학생이 다섯 사람이었는데 선생이 여덟 분이었습니다. 2년 과정이었어. 법정 스님은 역경원 간사를 하셨어. 교무처장 비슷한 직책이죠.” 스승 여덟에 학생이 다섯, 일대일도 넘으니 숨소리까지 놓치지 않을 목숨을 주고받는 탄탄한 도제 교육이다. 돈연 스님은 그 뒤로 79년도까지 법정 스님을 모시고 살았다.

법정 스님은 71년에 (영혼의 모음)을 76년에 (무소유)를 냈다. “사실 70년 대 후반까지만 해도 베스트셀러라도 돈이 별로 되지 않았어. (영혼의 모음)을 처음 낸 출판사에서 인세를 주지 않았어. 책은 팔렸는데 우리가 번두리 서점들 가서 책을 보면 인지가 붙어있지 않았어. 그러면 그걸 걷어다가 항의를 하곤 했죠. 제가 그 심부름을 많이 했어. 그래서 출판사를 여러 번 옮겼어. 그리고 꽤 얼마 있다가 와다나베 쇼코가 지은 <불타 석가모니>를 스님이 번역을 하셨어. 그때는 세 권으로 나왔는데, 그때 받은 원고료가 180만원인가 그랬습니다. 그 돈으로 불일암을 지었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난 번 만났던 사촌동생 박성직 선생이 72년 사업체를 하고 나서 몹시 어려워 스님께 어렵사리 돈 부탁을 드렸을 때 ‘출가수행자가 무슨 돈이 있겠느냐? 도와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한 말씀이 떠올랐다.

역경원 생활이 바탕이 되어 한 평생을 티베트 풍경, 한문 장경, 팔리어 장경을 두루 읽고 번역하는데 바치고 있는 돈연 스님. “역경원에서 이제까지 찍어한 400권쯤 나왔잖아요? 50년대부터 시작을 했는데 책을 제대로 내기 시작한 때가 60년대부터였어. 종단에서 돈이 없으니까 봉은사를 내드렸죠. 그때 봉은사는 끼니가 어려웠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기도 장화 없는 못산다는 데가 봉은사였어. 운허 스님께서 50년대부터 박정희 대통령과 그 전 대통령들한테 꾸준히 탄원서를 올렸어. 정부도 돈이 없어서 돈을 주지 못하다가 60몇 년도인가? 하도 스님이 정성스럽게 꾸준히 편지를 보내니까 이후라 비서실장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 그 뒤로 해마다 700만원씩 보조를 받았어. 그때 30평짜리 AID아파트가 350만원 할 때니까. 제법 큰돈이었죠. 그 돈을 받아서 번역해서 책을 냈는데 처음 계약했던 출판사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원고를 가져다주면 책을 팔고 나서는 돈을 주지 않아. 그렇게 한 3년 동안 단만 날리고. 그 뒤로부터는 판매부를 직접 뒀 거지고 역경원을 만들 때 사무실은 동대 꺼 쓰고, 돈은 700만원씩 받으니가 돈이 좀 모였어. 동국역경원이 동대 소속처럼 되어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역경 사업 기초는 발이 닳도록 애를 쓰신 운허 스님과 법정 스님, 그리고 돈연 스님이 비롯한 역경원원들이 모두 함께 흘린 땀이 모여 이룬 역사이다. 돈이 들어오니까 관리가 쉽지 않았다. 생각 끝에 운허 스님께서

법정 스님한테 실무를 좀 보라고 했다. 그런데 법정 스님이 돈연 수좌는 경어를 좀 할 줄 아니냐 말라고 했다. “당신은 말치 않고 나보고 말으려는데 말 수 있느냐? 저도 거의 25년 동안 살면서 주지 한 번하지 않고 돈 만지는 소임을 하지 않았어. 그 스승에 그 제자지. 그래서 '스님이 하시면 따르는 게 마땅하지만, 스님도 하지 않으려는 일을 제가 왜 해 마땅하지' 그랬어. 그렇게 싫은 일, 갖은 일은 하지 않으려는 지식승려들 병폐가 거기 있어. 현실에 물들려 하지 않고 살려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지. 사실 현장에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현장의 애환을 모르잖아요. '진속불이(眞俗不二라. 진과 속이 둘이 아니다. 세속과 출가가 둘이 아니다) 하지만 말뿐이죠. 역경원에 근무하는 분들 가운데 승려출신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기 때문에 힘이 없어요.”

## 수행은 담음과 행동 결합

## 담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수행이라는 게 뭐냐? 담음과 행동을 합친 말이죠. 담으면 저절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인데 담기만 하겠다는 거예요. 수행은 안팎을 담는 일입니다. 안으로 마음 안정을 찾고 밖으로 이 사회구조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수행자는 안[內]만 담고 있어. 바깥은 죽으나 사나 나 몰라라 하는 절름발이 수행이예요. '그냥 산 속에 앉아서 머리 깎고 앉아서 가져다주는 법 말고 그런 건 누가 못 하나?' 는 내 말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 결혼해서 살면서 자기 수입 가운데 많은 부분을 내놓아 끊임없이 어떤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굳이 승려들이 나서지 않아도 세상은 잘 굴러 가는데. 그러니까 다 내놓자. 사찰 경영 우리가 시도할까. 왜 우리가 돈 만져야 하나? 절 살림은 신도들한테 맡기는 게 좋겠다. 돈 내는 사람이 신도들이잖아요. 정 재가불자들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면 살림살이를 잘하는 여자들, 비구니들한테 맡기자. 우리는 평생을 하루 세끼 얻어먹고 그냥 막물 웃 정도 입고, 사치해봐야 얼마 안 되니까. 그 정도만 하고, 신도들은 정진 수행에 힘을 쏟기 어려우니까 그 부분만 우리가 맡자. 재가가 가운데는 은행가도 있고, 재테크하는 사람도 있고, 많지 않느냐? 우리보다 살림을 더 잘할 거다.”

돈연 스님도 광주 향쟁을 겪으면서 세상으로 나올 수 있었다. 그전에는 좋은 산중에 살아야 한다. 계율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매어있었는데, 광주 향쟁을 겪으면서 환란이 왔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가는데 과연 우리 집단은 뭐하고 있느냐하는 자괴감이 들었다. ‘불교는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이때로 끝내기는 섭섭했다. 그래서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대해 다시 정립을 해보자' 마음먹고 인도로 갔

## 화제의 불화

- 후손까지 번영하게 **축원불공** 마쳐
- 재난과 액운을 쫓고 **소원성취** 영험



「세존이시여 무손인연으로 관세음이라 이름합니까? 부처님께서 무진 보살에게 이르시길」

만일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설사 큰 불속에 있어도 그 사람을 태우지 못하고, 물속에 빠져 헤매도 물이 얕은 곳으로 인도하고, 폭풍을 만나도 그들이 탄배는 침몰하지 않으며, 도적과 강도가 들어도 해하지 못하고, 여인이 자녀를 낳기를 원하면, 원하는 아들 딸을 낳을 것이고, 부귀영화와 명예를 얻을 것이며, 죽을 병에 있어도 나칠귀의 액연에서 벗어나고,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

## 수월관음도

가정과 사업장에 꼭 있어야 할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지혜를 주고 어려움은 마음을 여리게 된다.

「무진이여, 관세음보살이 이렇게 자재한 신력이 있어서 사바세계에 노닐다. 그대는 잘 들어라 관세음보살의 행은 시방 어느곳에나 잘 응답수 있다.」(관세음보문품경에서)

수월관음도는 바다물속에 비친 달속 여의주를 든 관세음보살의 밝은 모습으로 중생들의 근심, 걱정 고통과, 액운을 소멸하고 세상은 동안 원하는 소원을 성취시키고 안녕을 지키는 수호신으로 자비로운 구제자의 영험을 보여주는 불화다. 여의주는 글자 그대로 원하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신비의 구슬로 만가지 부적을 능가하는 영험을 지닌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안녕과 번영을 주고자 하는 관세음보살님의 약속으로 여의주를 들고 있는 아주 특별한 불화다.

우리나라 수월관음도는 고려시대에 왕실과 귀족 가운데서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모였으며 조선시대에는 명문 불자 가운데서 관세음 부처님손에 여의주를 들고 있는 수월관음도를 그려 점안식과 축원불공을 하고 가문의 수호신으로 집안에 모시기 시작했다.

### ■ 만가지 부적이 필요없는 영험!

조선시대 불화를 한국불화의 佛母金成浩화백께서 불력으로 재현한 영험의 명작으로 점안불공과 축원불공을 마친 여의주를 든 수월관음도를 보는 순간 누구나 영험을 느끼게 된다. 수백년을 이어갈 가문의 소장품으로 가정에서는 자자손손 안녕과 번영의 수호신으로 방, 또는 거실, 사업장에 걸면 대단히 품위가 있다. 3단 최고급 액자와 100% 천연 전통 한지에 관화 인쇄된 수월관음도는 특별 제작한 불화로 액자 뒷면에는 불광사 보증서와 대대로 물려주게 소장인란이 있다. 전화로 신청하시면 특급택배로 안전하게 보내드립니다. (사찰스님 20% 할인)

규격 : 가로 67cm x 세로 85cm 가격 195,000원  
전화 : (02)741-4488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 032-12-193445 이상하 (신용카드분할가)

## 평생부자지갑 다라니福 지갑



원하는 재물을 얻고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 마쳐!!

- 소중한 남편과 가족친지에게 성공의 선물
- 소중한 아내와 자녀에게 부와 사랑의 선물

부처님 법구에는 세사상은 동안 물질의 고통을 소멸하고 평생부자로 살게하는 대비신력(大悲神力)의 법구가 있는데도 미련한 중생이 깨닫지 못하고 법구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고통속에 살아간다. 불가에서는 인연법과 불연법을 중시한다. 돈의 집인 지갑 역시 연이 되면 돈이 동서 사방에서 들어오지만 연이 안되면 돈은 들어오지않고 고통만 준다. 불경, 다라니의 근본은 신묘장구(神妙章句)로 글자 그대로 신묘하게 묘한일이 일어나 해결된다는 뜻이다. 다라니 북

지갑은 동서사방에서 복이 들어오게 하는 법구와 막혔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하는 영험의 법구가 들어있으며 음양의 조화로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게 왕진언이 지갑 앞면에 들어있다. 소재는 고급스카죽으로 되어 있으며 일반 지갑과는 비교될 수도 없게 내부도 질 거머져 있고 사용하는 중생이 급전의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 평생 부자로 살게 축원 불공을 마친 복지갑으로 선물로도 뜻깊은 선물이 될 것이다. 남성용 반지갑 65,000원, 여성용반지갑 95,000원 전화로 신청하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신용카드 분할가) 전화: (02)741-4488 (일요일,공휴일도 상담) 농협계좌: 032-12-193445 이상하

## 사업장의 법구 금강 삼고저

장사흥왕과 사업성공 축원불공 마쳐!



부처님 제1의 비방법구  
장사가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개업 선물로도 품격!

경기가 너무 없어, 장사가 너무 안되고, 문을 닫아야겠어, 요즘 사업을 하는 중생들의 푸념이다. 반면 복도 안중

고 불경기에도 흥왕을 누리는 점포와 사업장도 많다. 부자가 되는 터가 있고, 패망하는 터가 있고, 그리고 할 상 겨우겨우 먹고사는 터가 있다. 한 건을 한지봉 밑에서도 좋은터가 있어 사업이 잘되고 장사가 흥왕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장사가 안되는 자리를 보면 중생의 지혜도 부족하지 만 터도 세고 보이지 않는 집구의 방해로 오는 손님의 마음을 흔들며 문앞에서 방황하게 만들고, 들어왔 다해도 결정을 못하게 방해하고, 일 하는 사람이나 직원들은 오래 있지 못하고 첫손님이 첫손님이 되면 하

루종일 헛손님으로 장사를 힘들게 잡구가 초화를 부린다. 부처님 제1의 법구인 금강삼고저는 사업장의 화를 미리 쫓고 집구를 물리치며 사업성공의 수호신으로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 거상들이 사업장에 걸어 놓았던 금강삼고저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유물로 볼 수 있다. 각종 식당과 점포, 각종사업장, 산재위험이 있는 사업장 등에 금강삼고저가 걸려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장사흥 왕 및 사업번창과 산재예방의 축원 불공을 마치고 시편하는 금강삼고저는 금니로 제작되어있어 품위가 있

### 장사 성공을 축원합니다

신앙, 기원, 의류점, 보석점, 부동산, 음식점, 소매점, 목욕탕, 다방, 정육점, 노래방, 주점, 모텔, 여관, 병원, 각종여행, PC방, 당구장, 서점, 인쇄소, 문방구, 기원, 복관점, 각종스포츠센터, 핸드폰점, 명품사우나, 안경점, 신발매장, 전자제품매장, 장미점, 방앗간, 공방, 주유소, 신세계사 위해 사업장 등 어려운 사업장의 비방



철철 벗어 버렸듯 법정 스님에 대한 회고도 그랬다. 아쉬움, 미련 이런 것들은 없었다. 승복을 벗어던지고 만난 수많은 존재의 본질에 대한 천착이 스님을 더 자유롭게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름살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에게서 말아지는 뉘새는 나를 가볍게 했다. 모든 것을 놔 버릴 때 행복할 수 있다는... 정말 존재가 자유로와 질 때 행복해진다라는 확신이 들었다.

다. 1년 동안 무려 2000km를 걸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룸비니, 깨달으신 부다가야, 초전 범륜지, 처음 신도를 받아들인 바이살라, 그리고 돌아가신 쿠시나 가라를 비롯한 십대 성지를 걸어 다녔다. 걸어 다닌 까닭은 '부처님도 걸어 다녔을 테니 나도 걷자'는 생각에서였다. 걸어서 성지에 닿으면 첫째 날은 동쪽으로 12시까지 걸어간다. 12시가 되면 멈춰 거기서 다행히 얻어먹을 수 있으면 먹고, 그렇지 못하면 빈 속을 달래면서 다시 속으로 돌아온다. 보통 오전보다 오후 걸음이 낫다. 빨리 걸어야 오전에 걸은 거리 3분의 2쯤 걷는다. 그러다보니 늘 밤에 별을 보면서 걷게 된다. 이튿날은 남쪽, 그 이튿날은 서쪽 그리고 그 다음엔 북쪽으로 나흘을 걷고 나면, 사흘은 쉬어야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게 걸었다.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난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난 대로

“한 순례자가 스승이 태어나고 깨닫고 설법하고 돌아가신 길을 따라 무려 이전 킬로미터를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목숨을 내놓고 걷는다. 눈에 빠지면 코끼리가 길을 안내하고, 가시덤불을 만나면 만나는 대로, 맹수를 만나면 만나는 대로, 며칠을 걸어도 집 한 채 없는 황야에서 먹을 것이 없으면 굶고, 집을 만나면 차파티 한 조각으로 목숨을 잇고, 끝도

없이 걷고 또 걸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다. 진정 사람다운 참 사람, 부처님이 이 외롭고 쓸쓸한 길을 홀로 걸으며 진리에 목이 마른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나누셨다” 도안녀 님이 쓴 책 <남편인 줄 알았더니 남편이 아니더라> 한 대목이다.

“걷고 또 걸으면서 느껴보니까 부처님이 살았던 시대를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꾸미려한다는 걸 알았어요. 한국불교는 깨달음을 으뜸 목표로 하잖아요. 부처님이 우리에게 진정 전하려고 했던 메시지는 깨달음이 아니죠. 세상 속에서 세상과 함께 사는 일이 진짜 불교 모습이었어요. 치열한 삶이죠. 거기서 뭔가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등급화, 계급화 시켰어요. 그래서 승려집단만이 할 수 있다는 도그마에 빠졌어요” 걸으면서 “당신은 우리한테 무엇을 주려했는가? 또 존 게 잇기는 한가? 그리고 내가 한국 사람으로서 부처님한테 치열하게 묻고 답하는데, 부처님이 내게 답을 해주어야 할 까닭이 있는가?”를 묻고 또 물었다. 나중에는 ‘내가 2500년 앞서 살았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한국까지 책임지느냐? 그건 너희들 일이지 내가 치열하게 생각하고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런 답이 저절로 나왔다.

“내가 참으로 세상을 향해서 무얼 이야기할 수 있느냐,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중요하지. 지금 내 옛날 동료들이 늘 못하고 있는 나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친구들은 그 나름 열심히 살고 있는 거고. 마치 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이

나 국방의무를 행하는 군인처럼” 틀을 벗어던진 사람은 자유롭다.

돈연 스님은 담담하게 말씀한다. “처칠을 알려면 처칠을 읽어야 하고, 일본을 알려면 일본을 읽어야 하듯, 불교는 부처님이 만든 종교이니 불교를 알려면 석가모니 부처를 읽지 않으면 안 돼요. 석가모니라는 사람 삶을 훑어보지 않을 수 없죠. 이것이 첫 걸음이에요. 가장 손쉬운 일이지. 무슨 생각으로 무엇을 얻으려고, 그리고 끝내 무엇을 얻어 이윳과 함께 했는가를 헤아려야 해요” 펄펄 살아 숨 쉬는 사람, 석가모니를 만나지 못하고 생생한 목소리를 듣지 못하면 불자가 아니라는 준엄한 말씀이다.

“내 이웃이 바로 부처이며 예수님이며 천주님입니다. 이 모두 한 뿌리에서 갈라져 나온 여러 가지들이지요. 불교를 배우는 일은 자기 자신을 배우는 일이며, 자기를 배우는 일은 자신을 텅 비우는 일이에요. 그래야 모든 사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깨달음은 내게로 퍼져나가는 일입니다. 깨달음이 이웃에 닿지 못하면 그 깨달음은 중생을 잃은 깨달음이에요. 진정한 깨달음은 지혜 완성이자 자비 실천으로 이어져야 해요” 법정 스님 말씀이다.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글=법정 스님 사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따귀를 ‘철썩’



새하기를 맞은 교정은 활기가 넘친다. 특히 생기발랄한 모습에서 신입생의 환희를 느낀다. 기약 없이 휴식을 취하고 있는 듯한 나뭇가지에서도 생명의 기운이 돋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살아있는 것들의 큰 매력이 아닐 수 없다. 봄이 오는 대지에는 삶의 환희와 찬미가 넘쳐난다. 보드기에 읊트는 가지를 보며 겨우내 숲에서 난 산새의 날개짓이 육(育)지니의 설익은 몸짓 마냥 푸득이는 모습을 보며 행복을 만끽한다. 남산의 산행길에는 시각장애인들이 흰지팡이에 의지해 중앙의 노란 길을 따라 조심스레 걷고 있다. 그들은 봄이 오는 모습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 바람으로 느낄까. 아니면 봄내음으로 느낄까. 헬렌 켈러는 봄이 되면 나뭇가지를 잡고 손끝으로 봄을 느낀다고 했다. 봄을 느끼는 유형은 사람마다 다르고 그가 처한 환경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마 근기의 문제로 귀결될 직 하다.

수행에는 근기라는 말이 쓰이곤 한다. 수행자의 용량 단위를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로 분류한다. 도를 논하면 상근기는 열심히 닦고, 중근기는 반신반의 하며, 하근기는 무슨 그런 말

스레 예배하고 있었다. 그 때 대중(大中)이 와서 물었다.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 찾지 않고, 예배하여 과연 무엇을 찾았을 게 있소!” 그러자 황벽은 “부처에게서 찾지 않고, 법에서 찾지 않고, 대중에게서 찾지 않고, 그러면서도 항상 이렇게 절한다”고 대답했다. 대중이 “절은 해서 무엇하오. 아무것도 찾지 않으면서 절만 하다니 어리석은 것이 아니냐”고 들이댔다. 그 때 황벽은 별책 일어나, 대중의 따귀를 철썩 때렸다. 대중은 “이런 난폭한 자가!” 하고 열이 빠졌다. 황벽은 “이런 경우, 난폭하다느니 친절하다느니를 따질 때가 못 돼” 하면서 다시 한 대 철썩 후려쳤다.

내리 3번 호되게 뺨을 맞은 대중은 그 후 환속해 선종 황제가 되었다. 그 때 뺨을 때려 준 황벽에게 고마움을 잊을 수 없어 추행사문(醜行沙門)이라는 호를 하사했다. ‘난폭한 승려’라는 말이다.

선종은 상근기일이 분명하다. 그가 만약 하근기였다면 지난 날 염관 국사의 도량에서 뺨 맞은 양강음을 했을 것이다. 지난날에 패념치 않고 추행사문이라고 호를 내리는 여유를

봄을 느끼는 유형 근기따라 다르듯 교육체별 ‘사랑의 매’ ‘폭력’ 판단

이 있느냐고 부정하며 웃어넘긴다는 것이다. 똑같은 상황임에도 각자의 근기에 따라 판이하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근기(根機)는 범어로 Indriya라 한다. ‘거대한 힘을 지닌 인드라의 힘과 설득력과 자질’을 의미한다.

<벽암록> 제11칙의 내용이다. 어느 날 황벽 선사는 남자들에게 “그들은 모두 술지게미에나 취해 다니는 놈들이다. 지금처럼 할 일없이 이 절 저 절로 공방이나 추내고 다니니 그대가 가지고 어찌 오늘의 나 같은 경지에 이르겠느냐?” 이 때 한 남자가 불쑥 나와 따졌다. “하지만 도처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사가 많은데 그들은 뭘니까?” 그러자 황벽 선사는 “선이 없다는 게 아니다. 선은 우중에 가득 차 있지만 다만 없는 건 울버린 스승 뿐이다”고 대답했다.

당나라 선종 황제(宣宗皇帝)는 재위 기간이 847~859년이다. 선종 황제를 대중천자(大中天子)라고 한다. 그는 한 때 출가해 황영 선사의 제자가 되었고, 후에 염관제안국사의 회상에 있었다. 당시 황벽 선사도 그 절에 수좌(首座)로 있었다. 얘기는 이렇다. 어느 날 황벽이 정성

보이고 있지 않은가. 교육현장에는 체벌문제가 핫 이슈가 되어 있다. 전면체벌금지라는 한 집단의 주장에 맞서 어느 선까지는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립각을 누그러뜨려 않는다. 선생님의 입장은 딱 할 뿐이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추느냐는 반문이다. 체벌이 폭력으로 번지지 않기 위해 우선 ‘사랑의 매’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는 것이다. 매의 길이, 위 아래 쪽 지름을 한정하는 것이다. 이런 류의 사랑의 체벌을 받은 학생이 사회의 일원이 되었을 때 사랑의 매의 고마움을 충분히 알 것이다. 대중천자의 마음같이.



동국대 선학과 교수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요법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 OK!



▲2011년 지식서비스 최우수기업 선정 사진

목욕탕 문화가 바뀌었다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반신욕법

반신욕을 하면 하체의 따뜻한 혈액과 상체의 차가운 혈액 사이에 대류현상이 일어나 잠손환 된다. 한의학에서 보면 두한족열의 원리로 몸속 노폐물이 땀과 함께 배출 되기 때문에 신체의 상태가 좋아진다. 휘나햇반신욕기는 3~4년전부터 하루 200~250명씩



무료체험을 하였으며 지금은 유료화에도 불구하고 체험방을 이용하는 체험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런 장점 때문에 휘나햇 반신욕기는 옷을 입은채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를 동시에 즐길 수 있고 편리하여서 책이나 신문 TV등을 볼수도 있어 획기적인 반신욕기로 각광을 받고 있다. 휘립건강(주)은 철,갈슘,마그네슘,셀레늄,등이 든 광물질 30여종 (특허특 제10-096707 호 발명의명칭 :세라믹 전기발열체 및그제조방법)을 혼합하여 특수제작한 슈퍼블랙디스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으며, 이를 자사의 브랜드인 휘나햇 반신욕기에 내장하여 보건진료소,노인정,경노당,한의원,산후조리원,복지원,등에 납품 하고 있고, 2011년에는 가정용을 개발하여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씩 보급 될것이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가능성 반신욕기 어디까지 개발됐나 기술의 진보가 건강 혁명을 일으켰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한마디로 기술의 진보가 이룩한 건강혁명이다.

휘나햇 슈퍼블랙디스크 반신욕기는 일반제품과, 제조 방식이 전혀 다르며 30여종의 광물질에서 방사되는 B.C.P슈퍼블랙디스크는 설치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특별한 온열이다. 여기서 나오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로 반신욕을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면상 발열체 반신욕조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이 가능성을 갖는다.

휘나햇 반신욕기는 가능성 외에도 친환경을 고려했다. 이동이 편리하고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도록 설계했으며 가구개념을 도입하여 고풍스런 분위기를 위하여 원목 (적삼목)으로 제작했다. 휘나햇B.C.P반신욕기는 신개념의 발명품이랄 수 있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주)휘립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립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영양 위기 식물 177종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분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원출판사 | 김상학 저 | 값 5,000원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회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남성 성기 등에 중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351-0260-3196-83 예금주: 김상학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허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